

아산나눔재단, 청소년 기업가정신 키운다

청소년 대상 '아산 유스프러너' 실시

아산나눔재단이 청소년 대상 기업가정신 교육 '아산 유스프러너'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산 유스프러너는 아산나눔재단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과 교육 현장에서의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청소년이 관심사와 재능을 발견하고, 경제 관념을 배우는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며, 이를 통해 창업 의지를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총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각 10회차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실리콘밸리 히어로'를 주제로 실시하는 교육은 실리콘밸리의 창업 사례를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법과 실험정신, 창업 문화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스스로 내길



아산 유스프러너 프로그램 모집 포스터. /아산나눔재단

찾는 앙트십 스쿨'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의적인 인재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미래형 기업가정신'은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청소년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 특화형 교육이다.

아산 유스프러너의 모집 대상은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20~30명으로 구성된 학교 및 단체로, 수업에 필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부터 2월 27일까지 아산나눔재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접수가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될 기관은 오는 3월 6일 발표된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전액은 아산나눔재단이 지원한다.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기업가정신 교육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아산 유스프러너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에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업가정신 교육이 필수인 만큼, 전국 각지의 더 많은 청소년이 이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아산나눔재단도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이주열 총재 '제조업 위기론'



기지수첩

김희주 (파이낸스&마켓부)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은 이제 우리 경제의 생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뜻 보면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할 법한 발언이지만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 디스플레이 등 제조업체를 대 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보통 경제동향간담회는 한은 총재가 경제단체장, 민간경제연구소장, 대학교수 등과 함께 경제현안에 대해 진단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종종 제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적은 있으나 이번 간담회처럼 참석 인원 전원이 제조업 종사자인 경우는 2002년 5월 경제동향간담회가 생긴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제조업이 위기라는 얘 기다. 국내 경기와 물가, 경제성장률 등을 기반으로 기준금리를 결

정하는 한은에게 한국경제의 엔진인 제조업이 흔들리는 것은 큰 고민일 것이다.

같은 날 한은이 발표한 1월 수출물가지수(82.95)는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으로 3개월 연속 내렸다. 지난 2016년 10월 80.68을 기록한 이후로는 27개월 만에 최저치다.

현장에서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7로 전월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6년 2월(63) 이후 약 3년 만의 최저치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업 업황 BSI의 장기 평균이 79였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제조업 전망은 더욱 어둡다는 것이다. 1월 제조업 전망BSI는 65로 2009년 4월(59)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제조업 위기론이 등장하고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 총재가 제조업 경쟁력 회복 없이는 거시경제 안정도 힘들다고 직접 거론한 만큼 규제 완화 등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h89@metroseoul.co.kr

동서식품 지역 어르신 위한 봄맞이 김장 봉사활동

동서식품은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어르신을 위한 봄맞이 김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은 김치를 직접 담가 은평구 노인나눔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어르신 500명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상 증가집이 김장재료를 지원하면서 따뜻함을 더했다.

신연재 동서식품 CSR 담당자는 "이번 김장 봉사활동으로 임직원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

사회에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동서식품은 소비자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서식품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월 1회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육원과 노인복지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육원 아이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독거노인가구의 기초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지난 19일 김장 봉사활동을 진행한 동서식품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서식품

한 도시 정화 및 미화활동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박인용 기자

오늘의 운세 2월 21일 (음 1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지나친 관심은 가족도 지치게 한다. 60년생 한바탕 뿌려서 열 개를 수확할 수 있는 운 좋은 날. 72년생 마음이 우울하니 친구가 웃을 일을 만들어 준다. 84년생 한밤중에 비단옷 입고 거리를 활보해 본들.
- 소** 49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61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무슨 일이든 도전. 73년생 기량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게 된다. 85년생 치치가 쉬운 날이니 충진이 필요.
- 호랑이** 50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되니 주의. 62년생 무관심이 화를 부르니 가족에게 신경 써야. 74년생 먼저 주는 것이 나중에 더 큰 것을 받는다. 86년생 자신 없는 일을 맡아 종일 마음이 불편.
- 토끼** 51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적극 활용. 63년생 잘 처리업은 거지가 대접을 더 잘 받으니 외모에 신경. 75년생 선부른 결정을 하지 말고 속도를 늦춰라. 87년생 거센 바람에도 갈대는 부러지지 않는다.
- 뱀** 52년생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다가 큰 낭패 보기 십상. 64년생 지나친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편해진다. 76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는데. 88년생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 말** 53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에 좋다. 65년생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77년생 가족이라도 공과 사는 분명히. 89년생 조금씩 서두르지 말고 부모님의 조언을 따라라.

- 말** 54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 66년생 굴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자. 78년생 바람이 마음을 흔들려 대니 갈등이 생긴다. 90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힘껏 노를 저어라.
- 양** 55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67년생 오늘 걸어야 내일 뛰지 않는 법. 79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볍다. 91년생 마음은 별이라도 딸 듯한 기세지만 자중할 때.
- 원숭이** 56년생 어제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면 실수가 없다. 68년생 매화가 피었으니 봄이 가까이 왔다. 80년생 내 것은 작아 보이나 내 자식은 커 보인다. 92년생 나이는 상사에게 따지다가 내가 당하게 된다.
- 닭** 57년생 격한 감정이 체면을 구길 수 있으니 말을 조심. 69년생 뒷사람에게 잘 보여 놓는 것이 내일을 편하게 한다. 81년생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자산. 93년생 고생한 만큼 성과가 좋고 원하던 것을 이루는 날.
- 개** 58년생 다소 예민한 날이나 큰 이익을 얻는다. 70년생 일이 미뤄져도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82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 94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 돼지** 59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을 계속 가야 한다. 71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온다. 83년생 농친 고기가 항상 더 커 보인다. 95년생 장래 발전을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는 하루를 보내라.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1			4			
			4		8			
6		4				5		9
	5			8			9	
8			9	6	5			2
	9		1		7		8	
9				5				6
		2						7
		8	7		1	9		

			9	5				
			4	7		6		
	7						1	
	8			5			4	
		3	4		6	9		
	1			9			7	
	4			8			9	
		8	7		9	1		
1	2			6			8	5

스도쿠 정답								
4	5	6	1	2	3	8	9	7
9	8	7	6	5	4	3	2	1
5	8	9	4	1	2	6	7	3
2	7	3	5	9	6	8	1	4
1	6	8	7	8	9	5	4	3
6	1	5	2	3	4	7	8	9
3	9	2	8	1	7	6	5	4
8	4	7	9	6	5	1	2	3

김상회의四季 진참회(眞懺悔)



결과의 공덕을 순수히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참회를 전제로 한다. 진정한 참회가 있게 되면 기도의 힘은 더욱 배가한다. 이를 일러 진참회(眞懺悔)라고 한다. 자신의 불선한 행동과 말과 업에 대한 진실 된 참회가 있게 되면 업장소멸의 준비 작업이 된 것이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기독교에서는 아우구스투스의 고백록이 우선적으로 빛나는 대목이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학창시절 세계사 시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이름이 같은 이 교부철학의 집대성자로서 그 이름을 외우던 이 신학자의 고백록을 보자면 인간으로서 참담하고 고결한 삶을 살고자 고민했던 흔적과 노력이 역력히 보인다. 그의 이러한 진실 된 자기 참회록은 결국 기독교신앙의 대표적 사상인 삼일위체론의 초석을 마련했으니 작게는 한 인간의 참회의 마음이 이렇듯 기독교의 궁극적 구원의 길을 보여준 것이리라. 불가에서는 천수경에 나오듯 열 가지 불선업에 대한 참회를 매일 아침 기도 시작을 하면서 염송하도록 하고 있다. 욕계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너무나 쉽게 저지르는 대표적인 불선업이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다 하여 삼업(三業) 참회로 간단히 단어화하고 있다. 실로 이 삼업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근심 더 나아가 고통스런 윤회의 모티브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 마호멧교 역시 그 시초는 기독교의 신인 야훼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 맥락은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참회를 전제로 하는 기도는 가피가 수습하다. 자기 자신을 순수한 상태로 준비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령이 섭수를 하겠는가? 인간의 마음이 바로 신명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들에게 더욱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내게 되고 그리하여 연민심이 발동하여 자애를 베풀게 되듯이 신명 역시 그러하여 선한 마음에게 호법 신장들은 가피와 두호의 힘을 내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잘못했다고 비는 중생들에게 매의 횡수와 중량은 조절되는 법이다. 현실의 법에서도 그 잘못을 뉘우치는 범법자들에게 양형의 감하는 조건이 되듯이 말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7400206 2002년5월28일 제414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7450111 2017년3월09일 제0248호